

新聞과 文學을 통해 본 東洋과 西洋*

尹 雪 曼

1. 新聞에 관하여

본인은 新聞學을 전공하면서도 文學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흥미와 열의를 갖고 이 방면 활동에 참여해 왔다. 新聞學과 文學은 서로 먼거리의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나 본인은 평소 이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중요한 相互關係가 있다고 보았고 오늘 그 見解의 일부를 피력하고 여러 분의 高見을 함께 청취했으면 한다.

본인은 성격적으로 每事에 그리 완고하지 않다고 자부한다. 西洋文化도 長點에 있어서는 學習해서 받아들여야 함은 당연하다. 문제의 중요성은 東洋文化에도 長點이 적지 않음을 認識하는 일이다. 우리 주변은 東洋人 자신이 西洋을 높히 평가하면서 東洋에 관해서는 지나치게 沒理解하는 世態인 것 같다.

1. 우선 新聞에 관해서 알아 보자. 中國의 新聞業은 그 시작이 역사적으로 오랜 과거로 소급된다. 二千餘年 이전 漢代의 〈저보(邸報)〉가 그것이다. 이는 地方政府로부터 王都에 파견된 관리가 皇帝의 근황, 通報 내지는 詔令등을 기재하여 자기 지방정부에 발송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中國에서 現代版 新聞業은 19世紀 중엽에 시작되었고, 이 또한 西洋 宣敎士들에 의하여 도입된 것이다.

2. 東洋의 新聞業은 그 시작에 있어서 비록 매우 일렀으나 그의 發達되지 못했던 原因에 있어서는 西洋과 文化的 背景을 달리하는데 기인한

* 이 글은 1981년 5월 6일 서울대 東亞文化研究所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임.

다. 韓國도 中國과 같겠거니와 東洋社會는 家族中心의 사회였는데 대해서 西洋社會는 個人中心의 사회이었다. 전자는 倫理와 和諧를 중시하는데 대해서 후자는 個人과 競爭을 중시한다. 東洋은 家族中心의 사회였는데서 家長과 年長者가 권위를 행사하기에 유리한 父權社會이었다. 이 같은 사회환경에서는 웃사람은 무조건적으로 명령할 수 있고 아래사람은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인습이 유발된다. 국가의 公僕 역시도 가족관계에서의 복종과 관리로서의 責任이 二重的으로 부과되면서도, 公務수행상 의견진술은 어려운 경향이였다. 아래사람은 무조건적인 책임을 질머지고 또한 怨恨을 품어서도 안되였다. 관리는 法令에 의한 책임한계 내지는 上級者와의 책임분담이 明示되지 못하였다. 그는 관리이면서도 상급자에 대하여 子女로서의 자세를 지녀야 했다. 이와같은 사회풍토에서 신문업의 발달은 자연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 수 없었다.

3. 中國의 新聞業은 그 처음에 英國에서 배웠다. 그러다가 후에는 美國에서 배워 왔다. 美國은 오늘날 西方國家를 대표하면서 近代 工業社會의 典型이 되고 있거니와, 우리는 이 서양을 올바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좋은 점은 公正과 競爭이고 나쁜 점은 營利만을 추구하려는 면이다. 문화의 기초가 다른데서 저들의 정신은 여러 모로 좋은 점이 있음을 잘 알아야 한다. 서양의 女性, 미국의 여자가 얼마나 근면하며 검소한가를 동양인은 제대로 이해못하는 듯 싶다.

1962年 美國의 케네디 大統領이 소련의 후르시초프에게 쿠바로 운송되는 미사일 武器를 송환해 갈 것을 통첩하고 쿠바해안을 봉쇄하였을 때 「뉴욕타임스」 같은 大新聞도 일체 기사발표를 보류하고 침묵했었다. 국가적 危機와 긴장상태에서 新聞은 愛國的 태도를 취하였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타임」이나 「뉴스위크」 같은 잡지가 美國 大統領을 우습게 취급하고 신랄하게 폭로 批評하는 기사내용도 심심치 않게 접할수 있기도 하다. 이같은 측면은 美國新聞이 지닌 長點이 아닐 수 없거니와, 公正과 경쟁에 의하여 발달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들 新聞들은 특정

財閥企業과 밀착되어 營利추구에 앞장서서 辯護하고 옹호하는 일면을 지니거니와 이는 短點으로 간주될 것이다.

4. 營利追求는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正當한 方法에 의하여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종래 中國이나 韓國의 몇 世代를 계승해서 운영해 온 商店들은 한결같이 信用을 第一로 삼아 왔다. 이점은 사실상 西洋의 각국이 비교하기 어렵고, 더욱이 近代에 와서는 더욱 그러하다.

營利第一主義의 관념아래에서 美國은 19세기 이래로 現代新聞業이 발달하였고 급기야 二人의 新聞王을 배출시키기에 이르렀다. 풀리처(J. Pulitzer)와 허스트(W. Hearst)가 바로 그 인물이거니와, 이들에 의해서 이른바 〈煽情主義〉(sensationalism), 그리고 과장과 수식을 능사로 삼는 이른바 〈黃色新聞〉(yellow journalism)이 나타나기에 이른다.

5. 〈物極必反〉이란 말이 있다. 모든 사물이 극성한 다음에는 반드시 그의 反作用이 따르게 마련이라는 것이다(예컨데 얼마전에 「워싱턴 포스트」의 女記者가 記事를 조작한데서 〈풀리처新聞償〉에 파동을 일으켰던 사건은 그 좋은 본보기이다.). 때문에 二次世界大戰 이후 西洋 新聞業界에서는 각기 서둘러 〈社會責任主義〉를 앞세워 新聞의 自律性을 주장하는 근본원인이 되었다.

6. 현재 中國의 新聞業界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 유사한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 결과는 國家와 社會로 하여금 公益보다는 피해를 입게 하고 있다.

2. 文學에 관하여

1. 東洋의 文學思想도 역시 和諧를 중시한다. 따라서 문장을 꾸밈에 있어서 〈溫柔 敦厚함〉을 크게 중요시 한다. 그리고 中國은 특히 〈中庸〉을 중요시하여 極端으로 흐르거나 혹은 僻僻되기를 삼가한다. 孔子도

말한바 있다. 「詩란 한마디로 말해서 생각함에 간사함이 없다」(詩, 一言而蔽之, 曰: 思無邪). <생각함에 간사함이 없다>는 이 발언은 진정 東洋文學作品의 最高理想을 말하는 것이다. (만약 英國의 로렌스로 하여금 「紅樓夢」을 쓰게 한다면 「紅樓夢」은 틀림없이 「채털레이 夫人의 사랑」으로 위어질 것이다.) 東洋文學은 人生의 즐거움과 幸福을 묘사함에 있어서 기본정신이 和諧와 中庸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에 비해서 西洋文學은 征服의 정신이 밀바탕되고 있다. 문학에서뿐만 아니라 각종 藝術——音樂이나 美術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征服의 정신이 자연스럽게 必須的으로 깔려 있다고 하겠다. 이같은 傾向性 역시 서양의 文化的 背景을 그대로 反映하는 것이다.

2. 1917년에 전개된 中國의 新文學運動과 그후의 五四運動 같은 것은 그러나 中國文學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바 되었다. 西洋의 文學思想 특히 共產主義 프로레타리아 文學은 바로 그 장본인이 된다. 저들 運動은 한결같이 傳統思想을 상실한 것이었으며 당시 서양정신의 盲目的 追從이었다. 우리가 잘 아는 胡適만 해도 20餘歲에 이미 많은 文章을 썼거니와 오늘날 이것들을 검토해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虛點을 발견하게 된다. 이같은 文化的 逸脫상태는 당시의 知識人을 대표하던 傅斯年, 錢玄同, 陳獨秀등에서도 예외없이 엿보인다. 여하튼 이같은 문화적 傳統精神의 상실은 급기야 中華民國 政府가 大陸에서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하기까지 이른다.

3. 中國의 전통문학은 원래 兩大主流로 나뉘어 왔다. 하나는 이른바 <載道派>이고 다른 하나는 <言志派> (緣情)이다. 이 두 主流의 作家들은 비록 각기 다르기는 하나 그 思想은 다같이 中國에 뿌리박은 것이었다. 載道派는 儒家思想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言志派는 道家思想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다. 전자의 경향은 入世的이고 積極的이어서 이른바 治國平天下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 후자의 취지는 은둔적이고 消極的으로 이른바 獨善己身—자기 한몸만을 보살피는 경향과 物外에서의 소요함

(逍遙物外)을 理想으로 삼는다. 新文學 運動이후 전통적인 載道派는 이미 철저히 비판받으며 폐쇄되었고, 이와는 반대로 西洋의 載道派, 즉 <載>한 것은 自然主義의 <道>나, 寫實主義의 <道>나 내지는 共產主義의 <道>등으로 연이어 속출하였다.

文學作品에는 道德性이 깃들어 있어야 바람직하다. 작품은 여러가지 형태로 快樂性을 묘사하거나, 이와함께 더욱 미묘한 품격은 도덕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서양의 작품은 이점에서 동양의 작품 경향과 완전히 다르거나, 서양의 載道派 문학은 이같은 도덕성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批評에도 建設的인 비평과 破壞的인 비평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근대에 나타난 프롤레타리아 文學은 완전히 파괴적인 비평으로서 당시의 大衆을 현혹시킨 바 되었다.

전통적인 言志派는 일찌기 1930年代의 林語堂에 의해서 다시 한번 活氣를 띠고 성행하는 듯 했다. 그러나 얼마안되어 中日戰爭이 폭발되고 서는 역시 희미하게 사라지고 말았다.

4. 個人的인 생각으로는 東洋文學이 획일적으로 西洋文學을 모방할 수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兩者가 뿌리박고 있는 사상적 토양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장 명백한 例證으로서는 동양의 音樂 美術이 <自然> (高山流水)으로부터 생겨 났고, <自然>과 더불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추구된 문제는 어떻게 <自然>과 和諧하고 서로 補完的인 것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中國의 舊小說은 모두가 大團圓으로 끝을 맺고 있다.

이에 비하면 서양의 音樂 美術은 科學 技術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들은 速度와 變化, 激動과 強烈함 등을 중심해서 이루어 졌고, 요컨대 騷亂과 激動 가운데 秩序를 찾으려 하고 秩序를 수립코자 하고 統一을 시도하는 것이다. 예컨대 록크음악이나 現代畫등은 한결같이 조금도 주저할 것 없이 그 실례가 되기에 족한 思想의 產物이다.

5. 結論的으로 말해서, 文學作品은 평소에 하나의 사회적 徵表(이는 달리 말해서 이른바 <觀>이나 <怨>이라 할수 있다)가 된다. 文學活動은 戰時에는 또 하나의 戰鬪(달리 말해서 이른바 <興>이나 <群>이라 할 것이다)이다. 따라서 自國의 그리고 자기 民族의 文學이 존재한다는 것은 필수적이다. 文學이나 藝術에는 國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文學이나 藝術性에 民族性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中日戰爭이 일어난 抗戰時期에 本人은 中學生 시절이었다. 그당시 학생은 학교에서 거의 하루 하루를 공부하기 보다는 노래를 배우며 지냈다고 할만 하다. 그 노래는 모두가 士氣를 고취하는 愛國的 가요이었다. 당시로서는 노래를 통하여 民族感情을 고취시키고 단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이는 孔子가 말한바 <興>과 <群>을 고취하는 것이었다.

1928年 중국의 首都가 北京에서 南京으로 옮겨질 무렵이었다. 蔣延蔽라는 지식인이 언급한 주장이 음미될만 하다. 당시 중국은 軍閥의 내분이 치열하고 國民黨 내부의 권력투쟁이 각축전을 벌이던 무렵이다. 당시에 蔣은 軍權도 政權도 결국은 <筆權>에 의하여 패배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蔣의 이 발언은 文學精神의 시대적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었거니와 역사적으로도 그의 주장은 중국 미래에의 豫言이었다.

1942年 毛澤東은 연안에서 이른바 <文藝座談會>를 개최하였다. 共產主義者들은 그들의 革命鬪爭에서 文學의 이용을 잘 알고 있었다. 당시 魯迅의 文學은 그들이 선전하는 左翼文學의 대표이었다. 그러나 毛澤東은 文學의 혁명적 수단은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文學이 政治에 영향을 끼치는 데에는 반대하였다. 魯迅이 1936년 일찍이 사망하였으니 망정이지 만일 오래 살았다면 共產黨에 의하여 暗殺되었을 것이다. 그의 제자인 胡風이 1949년 이래로 언급되고 문학활동을 정지당한 사실은 이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여하튼 文學은 물론이고 新聞도 역시 孔子가 이른바 <興>, <觀>, <群>, <怨>의 구실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 하다. 문학이나 신문이 이들을 적

절히 이용하고 살리는 한에서 國家의 福祉指向, 나아가서 民族, 社會, 人間集團의 복지건설은 가능한 것이다.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는 유익함 보다는 피해가 클 것으로 정말 신중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 하겠다.

東洋의 우아한 문화전통은 이와 같은 여러가지를 고려할 때 장점에 있어서 되살려야 좋을 것이다. 지나간 과거의 전통정신을 거울삼아 오늘 우리의 문화정신을 새롭게 건설하는데 매진해야 할 줄 안다.

附記: 주위에 資料가 충분히 갖추어 있지 못하여 단지 기억에 의존하여 언급하였다. 소홀한 점이 많은 것 같아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尹 雪 曼

中國 河南省 出身

現 中國文化大學 新聞學科 敎수

中國 國立西北聯合大學 卒

美國 미조리大 新聞學 碩士

中國 國立成功大學 外文敎수 역임

著書. 「中國文學概論」, 「中華民國文藝史」, 「海外夢廻錄」